

보건소, 진료→예방·건강관리 중심 ‘광주형 공공의료’ 대전환

동·서구 6개 권역 ‘통합 건강센터’ 치매검진·생활습관 개선 서비스
동구 만성질환 관리·서구 방문진료 확대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가 보건소 기능을 진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광주형 공공의료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동구와 서구 6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되는 ‘통합 건강센터’(센터)는 치매검진부터 생활습관 개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결의 건강 거점으로 재편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동구와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기능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바꾸는 ‘통합건강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의 골자는 시민 중심 공공의료 혁신이다. 시는 동구와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센터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기존 보건소 기능을 진료 위주에서 예방적 건강관리 거점으로 바꾸는 ‘광주형 공공의료 대전환’의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지난 3월 광주시가 아동·노인 등 모든 시민이 의료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형 공공의료 대전환’을 선포하고, 공급자 중심이던 보건소를 이용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시 공모를 거쳐 선정된 동구와 서구가 참여하며, 각 지역의 보건소·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권역별로 3곳씩, 총 6곳의 통합건강센터가 운영된다.

센터 위치는 동구에 통합건강1센터(서남로 1), 통합건강2센터(밤실로 113), 통합건강3센터(지원로 31-9)가, 서구에 상무통합건강센터(운천로 172번길 32), 농성통합건강센터(경열로 33), 풍암건강센터(경열로 33, 임시 운영)가 들어선다. 풍암건강센터는 2026년 초 풍암동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센터 도입 전에는 치매검진, 금연, 운동, 만성질환 상담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권역센터 한 곳에서 검진·상담·관리까지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인력을 재배치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매니저’를 배치하고, 혈압·혈당·콜레스테롤·골밀도 등 기본검사와 생활습관 평가를 거쳐 시민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맞춤 분류한다.

필요 시 의뢰진이 가정을 방문해 관리하거나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도록 유도한다.

공동 서비스로는 통합건강평가, 치매검진, 정신건강 상담, 금연·절주 지원, 고혈압·당뇨관리, 영양 상담, 구강보건, 방문건강관리 등이 상시 또는 요일제로 진행된다.

여기에 자치구별 특화프로그램을 더해 동구는 만성질환 관리와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서구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퇴원 환자 대상 방문진료를 확대해 의료 소외를 줄인다.

센터를 방문한 시민에게는 ‘건강관리수첩’이 제공되며,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주요 건강수치 기록은 물론 식단·영양·운동관리 체크리스트가 담겨 있어 체계적인 자기 관리와 의료진과의 소통에 활용된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의료·간호·복지 통합 지원 기반을 마련,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다른 자치구로 확대해 모든 시민이 평등한 건강관리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맞춤형 관리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강운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보건소가 시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공공의료 거점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의료 혁신을 지속하고, 보건소를 지역 건강돌봄의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여수 개최 14일 여수 전남문화재단에서 열린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개최지 전남(여수) 선정 기념행사에서 김영록전남지사등 주요내빈들이 성공개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평가 ‘A등급’

지역특화산업 연계 인재양성 모델 구축...추가 사업비 10억 확보

광주시가 교육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아 추가 사업비 10억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키우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지자체 협력 사업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도입했으며,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지역에는 개선을 유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로 현장

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취·창업 지원으로 학습-고용 선순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형 인공지능(AI) 인재 성장 사다리’와 학교-대학-기업을 잇는 연계 프로그램이 디지털 인재 양성의 총출발 경로를 구축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정책 조정력을 높였고,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망으로 사업 계획-집행-점검의 일관성을 확보했다는 게 교육부의 평가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 설계, 지표 중심의 성

과관리, 부처·기관 간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작동했다는 점도 모범사례로 꼽혔다.

광주시는 이번 인센티브 10억원을 확보해 통합돌봄과 AI·미래차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정주형 인재 양성’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학생의 진로·직무 역량을 지역 기업 수요와 맞추고, 대학-연구기관-산업체 협업을 통한 현장형 프로젝트와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대·조선대의 글로벌대학 선정에 이어 교육발전특구 평가 A등급까지 연속 성과를 거두며, 교육을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에 놓는 광주의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지역에 머물고 성장하는 인재의 경로를 더 촘촘히 만들어 교육-산업-돌봄을 잇는 생활권 기반의 인재생태계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자 60만명 돌파

전남도는 14일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가입자 6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가입자에게 관광지 입장료와 숙박, 음식권, 전통시장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전국 향우회를 찾아 도정설명회와 정책비전투어 개최했고 시군과 함께 모집 캠페인을 벌였다. 또 신규 가입자와 추천인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에 부스를 마련하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특히 전남 22개 시군의 협조를 받아 상인연합회와 숙박업협회 등 7개 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할인가맹점을 846개까지 확대하며 서포터즈 대상 혜택을 늘려나가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통합 플랫폼(앱)’을 구축해 서포터즈 가입부터 가맹점 정보, 축제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과 할인가맹점 정보는 공식누리집(<https://namdo2.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광주 1형 당뇨 학생 116명...의료비 지원 ‘0원’

최지현 시의원 지원책 마련 촉구

광주지역 1형 당뇨 학생이 116명인데도 의료비 예산 지원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지현(광산 1선거구) 광주시의원은 14일 광주시교육청 시정질의에서 “광주지역 1형 당뇨 학생은 초 21명, 중 33명, 고 62명 등 모두 116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시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1형 당뇨는 대체로 어릴 때 발병해 체장의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줄어 평생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학습·급식·체육 등 일상 전반에서 지속적 관리와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는 게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 보조한다.

최 의원은 “일부 학생이 시선을 의식해 혈당 측정·주사를 숨기거나 식사를 거르는 사례가 있어 정서상담과 또래 인식 개선, 교직원 교육을 상시화해야 한다”면서 “학교는 응급 대비 장소가 아니라 아이가 질환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시, 지반침하 선제 대응 도로 하부 ‘공동’ 조사 확대

광주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도로 하부 빈공간(공동) 조사를 대폭 늘린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말까지 19개 노선 87.3km를 지포투과레이더(GPR)로 정밀 진단하고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보수한다.

조사 구간은 지난해 38km의 2.3배다. 시는 도로관리 주체·자치구·지중 시설물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긴급 복구를 상시화하고, 재점검과 데이터 기반 ‘지반 취약지도’ 구축으로 상시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야간·비혼잡 시간대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위험 구간은 통제·표지를 설치해 2차 사고를 막는다. 포트홀·미세침하 제보는 시 홈페이지와 콜센터로 접수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